

로컬리더

군산시, 농업 특화작목 집중육성

군산시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장 애로기술을 발굴 보급하고, 소규모 다품목재배를 병행하는 등 군산의 특색을 살린 소득작목 집중 육성에 나섰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쌀보리 미백 위주 농업에서 쌀보리 및 시설하우스 등 소득작목의 발전을 위해 원예농업 다각화 사업으로 올해 3억원을 투입, 20ha에 고소득작목을 육성했다.

또 군산의 대표작목인 시설가지와 고소득작목인 축삼딸기 등을 6.2ha 확대했으며, FTA에 대응해 경쟁력 향상과 인력절감을 위해 11.3ha에 대해 양파기계 정식 등 생력기계화와 신기술을 농가에 보급했다.

이밖에도 군산시는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지, 딸기, 토마토, 친환경농산물 등 고소득작목을 중심으로 집중육성하는 한편 신소득작목을 발굴해 특화작목의 규모 확대 및 보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이리향제출품류보존회 네팔 해외공연·봉사활동

이리향제출품류보존회 회원 8명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네팔 헤터우다지역에서 SDA한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훈 선교사의 초청으로 해외공연과 봉사활동에 나섰다.

보존회는 거문고·가야금·양금·대금·단소·세피리·해금·장구 등을 이용해 우아한 전통음악을 들려주며 품격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학용품을 전달하고, 우리 전통악기 등을 알려주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네팔 헤터우다지역의 한글학원은 현지인을 대상으로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존회 관계자는 "이번 연주는 척박하고 거친 땅 네팔 현지인이 한국인의 정서와 음악, 한국인의 정신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리향제출품류는 1985년 9월 1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군산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용 된 1542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에서 심의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군산시 홈페이지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12월 29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소방서 산악안전사고 산불예방 캠페인·안전수칙 교육

익산소방서는 지난달 29일 여산면 용화산 및 당제산 등산로 입구에서 익산소방서 직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악안전사고 및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캠페인 안전산행지도 심폐소생술 등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했다.

용화산 및 당제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안내문 배부를 시작으로 주변 등산로를 걸으며 등산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 등산 안전수칙 교육, 등산 전 스트레칭 및 혈압 혈당체크 등 기초건강검진과 산행구간의 쓰레기 줍기 등 자연친화 활동도 실시했다.

김석용 익산소방서장은 "자칫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등산은 곧바로 사고로 이어지므로, 즐거운 산행을 위해 반드시 기본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고 가을철 산행시즌을 맞이하여 시민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다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설문조사

명칭·슬로건·3대 중점과제 등 총 7문항 시민 4800여명 참여

익산시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의식 선진화운동'대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시민의식 선진화운동'은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로 익산시가 확정된 후 시민의식 향상을 꾀해 익산의 품격을 높이고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열어나가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한 시민운동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민의식 선진화운동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시민의식 선진화운동의 명칭 및 슬로건, 3대 중점과제 설문 등 총 7문항으로 이뤄졌으며, 시민 4,800여명이 참여했다.

요성이 있으며 전국체전 성공개최의 주요 요소라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의 명칭은 '익산사랑운동'이 압도적으로 많은 46.4% '원더풀 익산 만들기'가 두 번째로 22.1%를 각각 차지했다.

슬로건은 '클린도시 익산! 희망도시 익산!'이 32.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 익산시가 깨끗하고, 희망찬 도시 이미지를 갖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중점과제에 대한 설문에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공시설 깨끗하게 사용하기(20.4%)', '불법 주정차 안하기(18.2%)'를 꼽았다.

'진실 실천'에 대한 최우선 과제는 '밝은 표정으로 먼저 인사하기(39.3%)'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생활화하기(27.4%)'를 꼽아 생활 속

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절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눔과 배려' 실천을 위한 과제는 '나눔과 배려'를 먼저 생각하기(21.1%)와 '상호 비방하지 않기(19.2%)'가 많은 득표를 차지해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존중이 더욱 요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통해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전국체전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의식 선진화운동에 따른 시민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는 익산시청 홈페이지(www.iksan.go.kr)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미용동 평생학습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주민등록 등·초본·토지·건축물대장 등 즉시 발급

오늘부터 군산시 미용동 평생학습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운영된다.

미용동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인근에 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민원서류 발급수요가 많은 지역이지만, 그동안 서류 발급을 위해 다소 거리가 있는 나음3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시는 지난 9월 미용동 평생학습관이 준공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 위해 개관 전 무인민원발급기

를 먼저 설치해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나음3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인근 주민과 직장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토지·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국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일부 민원서류의 경우 수수료

가 관공서 창구보다 50%정도 저렴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현애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 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산시는 이번 설치된 군산시 평생학습관을 포함해 ▲군산시청 ▲나음2동주민센터 ▲늘푸른도서관 ▲조촌동주민센터 ▲동근장병원 ▲수송동 주민센터(2대, 내·외부) ▲자유무역관터내 산관원센터(2대, ※법안인인감무인발급기 1대 포함) ▲군산의료원 ▲군산근로자종합복지관 ▲군산향연연어터터터기널 ▲소송동주민센터 등 총 12개소 1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 예약 급증 '호황'

풍부한 근대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도시로 우뚝 선 군산시의 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가 가을 수확여행시즌을 맞아 문의 및 예약이 급증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올해 군산의 역사탐방 여행서비스를 이용한 학교단체 이용객들은 지난해 1만 6,360명에서 올해 2만 2,969명으로 전년 대비 40.3% 증가했다.

시는 역사교육중심의 체험학습 제공을 위해 지난해 3월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군산 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를 등록했다.

이후 많은 학교에서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으로 군산을 찾았고, 예약 및 문의가 폭주해 일부 날짜는 예약이 조기 마감되기도 했다.

군산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는 역사문화탐방 지도사가 해설과 함께 미션을 제공해 학생들의 현장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준다. 또한 우리역사의 이름을 알리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되어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군산을 방문한 학생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유익한 현장학습이 될 수 있도록 체험코스 및 미션지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쏟겠다"며 "앞으로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직접

포터가 되어 해설을 하고 역사현장을 직접 담아 영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스마트 투어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는 조달청과 군산시가 공동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여행상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 국화분재 경진대회 대상에 한정숙씨

지난달 28일에 개막한 제13회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인 국화분재 경진대회에서 국화연구회 한정숙(60, 용동면)씨가 2년 연속 대상에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88명의 국화연구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17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4명의 국화분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 외에도 최우수상에 심형섭씨, 우수상은 유성기 김혜순 오세석, 최성길, 유창수, 정종천 씨, 장려상은 최경수 신영일 씨 등 총 10명이 수상했다.

대상인 한정숙 씨의 작품 '석부 삼간작'은 기암괴석에 국화가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잘 어울려져 매우 뛰어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심사위원들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13회째인 익산국화축제와 같이 출품한 익산국화사랑연구회는 그동안 국화재배이론과 실습교

육을 통해 재배한 국화분재를 매년 축제에 출품하고 있다.

회원들의 실력이 매우 뛰어나 올해는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됐으며 우수한 작품들이 전시돼 국화축제 명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외에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일 10명씩 전시관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국화연구회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만든 국화분재 작품을 보며 국화의 멋과 매력에 빠져보시라"며 "천만송이 국화축제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제13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오는 11월 8일까지 익산중앙체육공원에서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 익산'을 주제로 진행된다. 오색 국화로 만든 12만점의 작품과 시민참여공연, 시식홍보행사 등은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킨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미륵사지 유구 보존·복원정비 학술심포지엄

익산시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오는 4일 익산시 모현도서관에서 '익산 미륵사지 유구 보존과 복원정비 방안'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정현을 시장, 소병홍 시의장, 최맹식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등이 참석하며 최장으로 김봉진 서울대학교 객원 교수김주익 익산시청 문화산업국장, 박기화 한국전통건축연구원, 배병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 최완규 마한배재문화연구소장, 최희수 상명대 교수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는 백제 무왕 대에 창건되어 조선시대까지 경영되었던 사찰 유적으로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발굴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규모와 가람배치의 특징이 밝혀졌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에서는 김현용 국립미륵사지 복원정비 연구 현황과 계획, 유구 손상도 평가에 따른 보존정비 방안과 배수체계 개선방안, 국내·외 건축유적 보존정비 사례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최근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진행한 익산 미륵사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유구의 보존과 복원정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체계적인 복원고정정비연구를 통해 백제왕도 익산의 역사성과 가치를 발현시킬 것"이라며 "학술심포지엄에 지역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11일까지 일정 돌입

익산시의회의는 지난달 31일 제98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11월 1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익산시의회의는 2016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제안 및 일반회계 심사를 처리할 예정이며, 본회의 안건처리에 앞서 임형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소병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등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고, 아울러 "동질기에 대비한 화재예방 시설대책 등 월등대책에도 민전을 기해주시고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주변의 소

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임형택 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의 5분 발언에서 세계유산 등재 1년이 지난 현재 익산시 문화관광 활성화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익산의 지역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문화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을 했다. 고속도로 여산휴게소 명칭을 관광자원, 특산품 등을 연계 홍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익산을 알리는데 적극 추진해 줄 것과 익산역 광장에 미륵사지 석탑 왕궁리 5층 석탑을 랜드마크로 조성하기를 제안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법체계 구축

군산시가 아동영양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가 군산시의회를 통과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의 법체계가 구축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영양평가간 아동과 관련된 법·정책·사업 등이 전체 아동 또는 특정집단의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과 제도적 평가체제를 갖추어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과 확산 정책의 입안과 개발, 사업시행 초기단계부터 아동권리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으로 어린이 권리증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군산시는 올 연말 아동영양평가심사 종합계획

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아동관련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군산시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 아동영양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최종연도인 2019년 목표가 아동영양평가제도의 도입인데, 군산시는 조기시행을 통해 어린이 행복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지 단위 최초 시행에 따른 부담감과 어려운 점이 많지만 타 지자체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